

기독교윤리학의 맥락에서 본 ‘행복’ 개념*

연요한 (숭실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왜 사람들은 행복을 이야기하는가?
- II. 행복 개념의 다양성
- III. 행복: 아우구스티누스의 길 vs 아퀴나스의 길
- IV. 나오는 말: 한국기독교는 기독교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www.kci.go.kr

* 이 글은 2011 학년도 숭실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ABSTRACT •

This essay presents a sketch of the concept of happiness alternative approach to the study of possible links between religion and violence. Unlike 20th century's mainstream sociologists' prediction, religion has not been lodging itself in the privacy of worshiper's hearts, but emerged as an important player on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scene. The contemporary resurgence of religion seems to go hand in hand with the resurgence of 'religiously legitimized violence.' Mark Juergensmeyer epitomizes these violent aspects of religion as gods have mainly terror on their mind. In this essay, Mark Juergensmeyer's view on religion and violence will be contested.

Key words: Happiness, Christian ethics, Aristoteles, Augustin, Aquinas

I. 들어가는 말: 왜 사람들은 ‘행복’을 이야기하는가?

“편안함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어쩌면 ‘불편함’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불행은 피하고자 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왜 인간은 행복을 원하는가? 그리고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일까? 라는 물음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말은 무엇일까? 그 말의 뿌리도 그렇지만, 그 뜻을 새기는 것도 쉽지 않다. 복(福)이라는 말은 예부터 내려오는 말이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행복(幸福)이라는 말은 동아시아의 전통에서 사용되던 말이라기보다는 서양어 Happiness를 번역한 것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이것은 행복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말이지만, 그 뜻을 바로 새기가 그리 녹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숨 쉬던 사람들이 왜 이 행복이라는 말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달리 말하면 그 만큼 행복하지 않은 삶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여튼 20세기의 행복, 행복담론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후반 이래 지속적으로 ‘행복’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서구 사회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그 이전에 서구사회에서 ‘행복’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복담론이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이다. 이 시기부터 자본주의에서 추구하는 성장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면서 보다 나은 삶과 그 질(質)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고, 제3세계의 불행에 직면하여 행복의 실체와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싹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가치 해체의 징후를 보이고 끊임없는 탐욕이 지배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행복에 대한 개개인의 물음은 더욱 절실해졌다. 이러한 절실함에 힘입어 행복이라는 주제는 유행 상품이 되었다. 행복에 관한 담론은 1990년대에 이르러 현저히 증폭되었고, 최근에는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라디오·텔레비전·인터넷·신문·잡지 등의 각종 매체를 비롯하여 관련 강습 및 강좌와 전문 학술회의 또는 세미나를 통해 행복과 그 주변 개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헌에서도 행복이라는 논제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행복’이라는 주제가 술한 화두의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행복을 주제로 한 심리학, 사회학, 종교, 철학 등의 분야에서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널리 읽혀지고 있으며, 각종 매스컴과 각 학회에서도 다루고 있다. 하지만 행복이란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의 삶의 목적에 대한 물음과 함께 존재해왔다. 특히 고대 서양사상과 기독교 사상에서는 중요하게 이 행복을 다루고 있었다. 특히 고대 서양사상가들은 행복이 인간 삶의 목표라는 통찰 아래에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논의를 전개했고, 그 흔적을 행복론의 형태로 남겼다.

하지만 이렇게 제시된 다양한 행복의 이론과 행복한 삶에 대한 지침서들은 서로 모순적인 주장을 담기도 하고 독자들을 잘못된 생각으로 이끌기도 한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생각에 대해 천착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실제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생관과 세계관을 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복이라는 주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념을 다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작업을 위해 행복 개념의 다양성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행복’이란 단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성격을 다분히 띠어야 함을 논의할 것이며,

또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궁극적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의 가능성을 고찰 할 것이다. 그럴 때 한국 기독교가 행복한 삶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초를 하우어스의 교회윤리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해볼 것이다. 행복, 그것은 좋은 삶인지에 대한 물음과 답을 찾는 여정을 떠나보자.

II. 행복 개념의 다양성

행복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아울러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일까? 이런 궁금함에 대한 대답은 우선 그런 문제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 고민하고 그 물음에 답하고, 행복을 찾는 삶을 살고자 했다.¹⁾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대해 관심을 갖는 학문의 영역은 윤리학과 정치학이라고 했다. 그것은 행복이 단지 사적 영역 영역에만 그치지 않고 공적 부분에서도 다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라고 생각한다.²⁾

현재의 많은 행복담론들은 심리적 접근이나 경제학적 접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때로는 개인의 문제로 여겨지거나 사회 정책적 과제로 언급되었다. 행복은 어느 차원에서 다룰 때 그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을까?

1) 도성달은 「행복의 개념과 논점」이라는 글에서 행복의 개념유형을 주관주의 행복, 객관주의 행복, 절충주의 행복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절충주의 행복이라는 개념은 행복의 공사라는 관점으로 다시 풀어 본다면 공적 행복에 대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윤리학』을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대전제에서 시작한다. 그가 말하는 행복은 그리스어로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이다. 이 말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말이며, 삶의 완전성을 이룬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미국의 윤리학자 버나드 윌리엄(Bernard Williams)은 eudaimonia를 영어로 번역할 때 happiness보다는 well-being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행복에 대한 생각은 사적 행복에 그치고 있다. 사적 행복이란 개념이 성립한다면 공적 행복은 없는 것일까? 행복이란 말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조금만 하면 행복이란 말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공적 행복과 영적인 개념에 이르기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행복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가 행복의 의미를 묻는 것은 단순히 철학적 이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생각하는 일이다. 우리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이 있다.³⁾ 이것은 일단 위에서 말한 심리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이것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의 확보가 사회적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행복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면서, 그것을 공적 권리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히 행복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한국에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언제나 윤리적이고 정치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우리의 전통 사상에서는 민생(民生)이 중요했지만 사적인 행복은 낮은 백성의 차원의 문제이고 보다 높은 삶의 목표는 『대학(大學)』의 팔조목에서 나오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와 같은 것들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얼른 보아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정치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왜곡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국가목적 을 위한 개인 희생에 대한 무제한한 요구는 이러한 부분적 인생 이해의 자연스러운 결과의 하나이지만, 공적인 이름으로 일어나는 가렴주구(苛斂誅求)는 모든 것을 공공의 것이 되게 하는 체제에서 일어나는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조에서 많은 국가 공무원의 봉급은 원칙적으로는 존재하

3)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은 재산을 대신해 ‘행복의 추구(pursuit of happiness)’를 인간의 천부적 권리로 선언하였고, 뒤이어 1793년 프랑스 혁명 헌법에서는 ‘공공의 행복’을 사회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지 않았다. 사람을 전적으로 공적인 차원에서 보는 유습은 지금에도 큰 영향으로 남아 있다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소위 근대화의 과정과 경제 성장의 과실을 보면서 인간을 사적인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전환을 나타내는 일이기도 하다.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경제는 단순히 부국강병(富國強兵)이 아니라 국민 하나하나의 행복을 지향하는 것이 된 것이다. 행복권이 공적으로 정치적 권리로 규정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사상사적 전환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행복추구권이 헌법에 규정된 것은 제5공화국의 헌법이다. 행복권을 최초로 규정한 1980년의 헌법은 군사쿠데타로 성립한 전두환 정권의 합법화를 목표로 하였다. 여기에서 사적인 행복 추구의 규정된 것은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대신 국민을 사적인 행복에 만족하여야 하는 사적인 존재로 규정하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지만, 그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그 나름으로 행복의 본질적 성격에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서 행복의 추구를 규정짓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 헌법의 규정을 옮겨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헌법에서 행복추구권을 이야기하게 된 연원은 ‘미국의 독립선언서’라 할 수 있다. 행복의 추구라는 말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들어가게 된 것도 그 정황이 모호했다는 것이다. 인간 행복의 의미의 모호성을 생각하는데 그 사정은 그 나름으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독립선언서에 이 말이 나오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취한다. 즉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고 태어났으며, 그 가운데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가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취하는 것이다.(We fin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and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독립선언문에서 행복의 추구라는 말은 원래 18세기의 정치 철학자들에 의하여 인간의 천부적 권리로 말하여지던, 생명·자유·재산의 권리라는 문구에서 재산이라는 말을 대신한 것이다. 이러한 통념에 따라, 원래는 재산이라는 말의 삽입이 고려되었던 것이나, 이 선언문을 보다 보편적 인권에 관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선언문의 기초위원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이것을 행복의 추구라는 말로 대체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비록 대체되기는 하였으나, 이 구정에서 행복의 추구는 재산 소유 또는 소유를 위한 노력에 가까운 것을 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공적 행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 행복이란 공적 영역에서 정치적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행복을 말한다. 한나 아렌트는 이를 정치적 행복(political happiness)이라고 했다. 공적 행복에 대한 경험은 시민적 자유가 가능했던 근대 이후의 일이다. 평등한 시민, 자유로운 시민이라는 의식과 더불어 생긴 경험이다. 공적 행복은 공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을 때 경험된다.⁴⁾ 공적 행복이 강조되는 이유는 단순히 인간이 사적 영역에서만 자신의 행복을 향유하는 삶이 전적으로 행복한 삶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복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차원이 개인적, 공적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달리 말해 영적 차원 혹은 종교적 차원에서도 다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영원을 향한 또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인간에게 종교라는 다른 차원을 열어준다. 이 차원은 흔히 영혼과

4) 김선옥, 『행복의 철학』, 길, 2011, 47.

관련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특히 기독교에서 행복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되어 왔을까? 이 물음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자.

III. 행복: 아우구스티누스의 길 vs 아퀴나스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눅 11:28)

행복에 관한 기독교 윤리학의 물음과 답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반영하는 구원과 은총의 문제에서 시작된다. 기독교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체계적으로 모색한 이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라 할 수 있다. 이 두 사람의 행복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는 것이 행복에 대한 기독교의 답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론을 이해하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인간이 사멸하는 존재인 한, 필연적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다.”⁵⁾ 그렇다면 인간 본성 자체의 한계인 죽음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은총의 도움이 없이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행복관은 성서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에 대한 생각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⁶⁾ 이 전제는 그의 윤리학의 근본문제이기

5) Augustinus, *De Civitate Dei*, 9, 15. 1, BA 34, 387. 손은실, 「보에티우스 다치아의 『최고선에 관하여』-13세기의 신학적 행복론과 철학적 행복론의 충돌?」, 『철학사상』 2011, 314에서 재인용.

6) “모두가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백록』, 10,20,29 존 F. 하비, 문시영 옮김, 『고백록, 윤리를 말한다』, 북코리아, 2011,

하다. 다시 말해 행복의 추구는 최고선에 관한 논의와 같은 맥을 하고 있다. 논의의 구도만을 살펴보면 그리스-로마 시대의 윤리학과 일치하는 듯하다. 하지만 인간을 실존적인 결핍의 존재하고 이해하고 행복이란 실존적 불안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안정과 영원한 평화에서 얻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전 윤리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사상—은 인간을 위한 진정한 행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계를 지니고 있는 가상적 행복으로 간주한다. 달리 말해 그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사상의 행복 개념은 인위적이고 현세 지향적이며 인간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를 도외시하는 절반의 행복론 혹은 유사 행복론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진정한 행복이란 영속적이며 불변하는 것이어서 인간의 실존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진정한 행복의 가능 조건을 규정한다. 불안정하고 가변적이며 가사적인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려면 안정되고 불변하며 영원한 것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을 찾아 누리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상실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영원불변의 조건에 부합하는 행복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대상은 영원불변의 존재로서의 하나님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직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달성이라고 본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요건은 시간성의 지배를 받는 가변적 영역을 넘어서 모든 변화와 생성의 근거이자 생명과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한다.

우리는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마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에 따라 이런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인생여정 속에서 피조물들을 통해서는 행복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것을 『고백록』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행복한 삶이란 당신을 즐거워하고 당신께 나아가며 당신 때문에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⁷⁾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를 수용하고 고전적 행복론과 ‘영원한 행복’이라는 기독교적 축복의 개념을 종합하였다. 달리 말하자면 자연적 행복과 초자연적 행복의 구분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의 기저에 깔려 있다. 여기에서 초자연적인 행복이란 내용적으로 신에 대한 직관이라는 초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는 신약 성서가 제시하는 종말론적인 강조점을 수용하여 완전한 행복은 현세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에서 이룩된다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을 문시영은 행복의 지평을 확대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일깨워주었다고 평가한다.⁸⁾

아우구스티누스처럼 토마스 아퀴나스도 인간이 현세에서는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고 내세에 은총의 도움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실 이것은 두 신학자의 고유한 행복관이 아니라 행복에 대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본적인 가르침에 해당하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에게는 이중의 행복(duplex beatitudo)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인간이 현세에서 자신의 자연적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불완전한 행복이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여 이

7) 같은 책, 19에서 재인용.

8)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행복의 윤리학』, 서광사, 1996, 156.

불완전한 행복은 일차적으로는 사변적 지성의 관상에 있고, 이차적으로는 인간의 행위와 감정을 지도하는 실천적 지성의 행위에 있다고 말한다.⁹⁾ 다른 하나는 인간의 완전한 행복으로서 신의 본질을 보는 것에 있다. 그런데 신의 본질을 보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본성을 초월한다. 왜냐하면 피조물의 자연적 인식은 자신의 실체의 방식에 따른 것이고, 신의 본질은 모든 피조된 실체를 무한히 초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퀴나스는 인간이 현세에서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신의 본질을 볼 수 없는 것 외에도 현세의 삶에서 모든 악을 제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하여, 현세의 삶이 종속되어 있는 불가피한 악들로서 지성에 관련해서는 무지, 정서에 있어서는 무질서한 정념들과 신체의 많은 고통 등을 예로 든다. 이렇게 인간은 현세에서 모든 악을 배제할 수 없고, 모든 욕구, 특히 궁극적인 욕구인 신의 본질을 보는 것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토마스는 이러한 인간의 현실은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위대한 사상가들의 답답함을 충분히 보여 주며, 인간이 현세 이후에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하면 이 답답함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참된 행복, 즉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오직 신의 힘으로만, 일종의 신의 속성에 참여함을 통해 그것에 도달할 수 있다.”¹⁰⁾ 아퀴나스는 현세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불완전한 행복이고, 완전한 행복은 오직 미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¹¹⁾

9) 「신학대전」 I-III, 3, 5, c. 손은실, 「보에티우스 다치아의 『최고선에 관하여』-13세기의 신학적 행복론과 철학적 행복론의 충돌?」, 『철학사상』 2011,

10) 「신학대전」, I-II, 62, 1. c

11)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 5가지 물음을 던지고 답을 내놓는다. 여기서는 제2문, 제3문, 제4문, 제5문을 발췌해서 소개한다. 제2문: 참된 행복의 대상 1. 인간의 최종 목적, 즉 참된 행복(beatitudo, 幸福 또는 至福)은 富에 있지

기독교의 전통은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이 수용되기 시작할 때까지 우리의 행복에 대한 우리 인간의 물음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상의 선과 최종적인 목적만 지향하고 있으며 상응하는 답변이 주어져 있다는 정도로까지 행복의 문제를 해석했다. 인간의 최상의 선과 최종적인 목적은 신이며 인간의 행복은 신과 신의 현전에 있다. 바로 기독교적인 삶의 형성 모델로 인정되는 산상 수훈이 보여주듯이 행복은 차 안에서 성공한 삶의 개념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삶의 밖에 있는 피안의 것이다.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동의어인 라틴어 개념인 행복과 지복을 이교적인 고대 시대로부터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들의 특수한 내용은 함께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개념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성서적이고 종말론적인 내용을 부여했다.¹²⁾

않다.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영예’에 있지 않다. 3. 명성에 있지 않다. 4. 권력에 있지 않다. 5. 육체의 어떤 선일 수 없다. 6. 쾌락에 있지 않다. 7. 영혼의 어떤 선에 있는 것도 아니다. 참된 행복은 어떤 보편선이기 때문이다. 8. 우주 자체 속에 있을 수 없다. 우주는 유한하고 신으로부터 창조된 것이다. 제3문: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1. 객관적 참된 행복은 신이 자신이지만 주관적 참된 행복은 신에게 속해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며, 따라서 이 주관적 참된 행복은 피조물적인 그 어떤 것이다. 2. 참된 행복은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란 불린다. 그리고 생명이란 작용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하나의 활동이다. 3. 그렇지만 外感의 활동은 아니다. 참된 행복은 감각 속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4. 인간에게 특징적인 것은 지성이므로, 참된 행복은 무엇보다도 지성의 활동이고, 마음으로 의지의 활동이기도 하다. 5. 실천적 지성이라기보다는 완전한 활동을 하는 ‘사변지성’에 고유한 것이다. 8. 오직 지성이 우주의 근거인 신 본질 직관을 하는 한에 있어서, 참된 행복은 지성에 속한다. 제4문: 참된 행복에 요구되는 것들 1.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 a) 기쁨: 이 기쁨은 선 자체에 이르렀을 때 가지게 된다. 사랑에 대한 신의 응답 이다. 2. b) 신 본질 직관 3. c) 이해 4. 참된 행복을 추구하고 또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의지의 올바름이 요구된다. 제5문: 참된 행복의 추구 3. 이승에서는 아무도 완전히 행복할 수 없다. 4. 천상에서의 참된 행복은 상실되지 않는다. 5. 인간은 오직 신의 도우심과 더불어서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6. 참된 행복은 모든 피조된 본성을 넘는다. 7. 신은 우리의 의지가 최종 목적으로 향하고 거기 이를 수 있게 할 수 있다. 8. 모든 사람은, 그것이 완전한 선이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갈망한다. 그러나 모두 다 올바른 방향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분별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G. 달 사쑈-R. 꼬지 편, 이재룡·이동의·조규만 옮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요약』,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8, 126-139.

결과적으로 기독교의 행복개념은 현상 세계의 문제를 도외시하거나 그것을 정죄하는 금욕주의에 치달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적절한 이용과 평가를 통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잠정적인 행복의 조건으로 간주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행복론이 쾌락주의와 운명론적 사고를 넘어 영원불변의 존재인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 나아가야 함을 주장한 데 있다.

기독교의 행복론은 하나의 인간학적 혁명을 요구한다. 그것은 자유를 상실한 존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온전한 자유를 회복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나아가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의뢰와 신실한 신앙을 통하여 새롭게 된 존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행복의 소유를 누리는 데에서 완성된다.

IV. 나오는 말: 한국기독교는 기독교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최근 김성건의 연구—「종교와 행복: 한국사회의 관리/사무직의 사례를 중심으로(2010)」—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감을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앞의 조건을 갖춘 종교인들 가운데 개신교인들은 그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다른 연구와는 달리 행복과 종교의 상관관계를 종교를 독립변수, 행복을 종속변수로 보아야 종교와 행복 사이의 연관을 자세하게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연구를 보고 있자면 한국기독교가 한국사회에 던질 수 있는 메시

www.kci.go.kr

지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라는 것과 “행복에로의 초대”이어야만 할 것 같다. 하지만 세계 최고를 달리는 자살률에 대한 분석을 보면 기독교인의 자살률도 일반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나온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국사회는 공동체가 무너진 사회라 일컬어질 수 있는 정황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 부락과 대동계, 그리고 경조사를 함께하던 공동체가 더 이상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현재 한국인들은 그 준거집단이 될 수 있는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그 대안을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이런 전통적 공동체 말고 새롭게 삶의 자리에 일정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는 공동체로 삼으려고 노력한다. 교회 공동체는 전통적 관혼상제의 모든 예절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개인의 생활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강하다. 하지만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행복한가를 물을 때 ‘그렇다!’라고 쉽게 답하기 어려운 것 또한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포기할 수 없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영국의 기독교윤리학자 로빈 길(Robin Gill)은 *Churchgoing and Christian Ethics*에서 교회 출석이라는 잣대를 통해 기독교인들을 구분한다. 왜냐하면 일 년에 몇 절기가 되면 교회에 가주는 사람들과 달리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교회출석자 즉 적극성을 지닌 신앙인으로 나누어 ‘교회의 윤리적 가능성’을 분석해 내놓는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가능성에 대한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독특한 교회윤리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우어워스는 교회를 통해 ‘예수 이야기’대로 살아갈 모티브를 얻으며 교회 안에서 신앙인의 성품과 덕성이

훈련되고 성숙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예수 이야기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사회가 교회를 본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우어워스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존재 혹은 서사적 존재요, 아무 맥락도 없는 추상적인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던 맥킨타이어에 동의한다. 인간은 공동체에 속한 존재요, 공동체가 지닌 이야기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이야기를 따라 잘못을 교정하고 윤리적으로 성숙되는 존재라고 보았다.¹³⁾

이것은 최고선을 찾아 순례하는 이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본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한 순례의 공동체이며 예배와 덕성함양의 공동체이다. 그에 따르면 교회 안에서 순례자들은 지혜의 정신을 밝혀주고 경건의 마음을 강화시켜주는 은혜를 힘입어 ‘평화’라는 궁극적 선을 향하여 순례자의 삶을 살아간다. 참된 행복을 찾아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곳이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그곳에서 맛볼 수 있는 행복을 놓칠 수 없다.

현재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우구스티누스나 하우어워스가 바라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고 해도 삶의 궁극적 목표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야기가 있고 소통할 수 있는 한국기독교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 기독교는 사적 영역,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 영역에서 행복을 맛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의 모습, 정체성에 대해 깊은 반성과 그에 따른 실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13) 문시영,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 새세대교회윤리연구소편, 『교회윤리』-은혜공동체세우기, 북코리아, 2011, 20-21.

참고문헌

- 김선욱. 『행복의 철학』. 서울: 길, 2011.
-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행복의 윤리학』. 서울: 서광사, 1996.
- 문시영. 『기독교 윤리 이야기』. 서울: 한들출판사, 1997.
- 손은실. 『보에티우스 다치아의 『최고선에 관하여』 - 13세기의 신학적 행복론과 철학적 행복론의 충돌?』. 『철학사상』, 2011.
- 새세대교회윤리연구소. 『교회윤리』 - 은혜공동체세우기. 서울: 북코리아, 2011.
- 존 F., 하비. 문시영 옮김, 『고백록, 윤리를 말하다』, 서울: 북코리아, 2011.
- G. 달 사쑈-R. 꼬지 편, 이재룡 · 이동익 · 조규만 옮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요약』.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8.
- 헤르만 클레버, 박경숙 옮김. 『삶의 목적인 행복』. 가톨릭출판사, 2006.

논문투고일: 2011. 10. 30

심사개시일: 2011. 11. 18

게재확정일: 2011. 12. 17

• 국 문 초 록 •

이 논문은 행복이라는 개념을 기독교윤리학의 맥락에서 다루고자하는 시도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화두가 되어 온 행복담론에 대해 기독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사회의 행복담론은 때로는 잘 먹고 잘 살기(의식주)가 웰빙이라고 생각하는 흐름에 따라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과연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낳았다.

이러한 물음에서 행복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은 종교와 행복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종교와 행복의 관계가 사회과학적 행복지수에 다 표현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함이 일어난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올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논자는 중세 기독교윤리학,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이들이 제시한 행복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 기독교윤리학에 있어서 유의미한 담론을 형성 할 수 있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다.

주제어: 행복, 기독교, 종교,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